



2018년 4월 29일(제873호) 부활 제5주일(이민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는 엉뚱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은 해야겠고 막상 떠오르는 건 없고. 그래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사실 이번 달 원고가 내내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종미사 후에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티타임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덕분에 주일 밤마다 이불킥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젊으셨던 주임신부님과 함께 충주 어딘가에서 밤낚시를 하던 중에, 갑자기 좋아하는 단어를 물어보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환상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역시나 주임신부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주임신부님의 눈빛만 기억납니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1도 모르겠어.’라는 말하는 듯한 그 눈빛! 사실 ‘환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당시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해 알고자 물어보셨던 것인데, 저는 완전히 엉뚱한 대답에 엉뚱한 이유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엉뚱한 것들만 청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 길가다가 많은 돈을 주웠으면 좋겠어.’ 예수님 보시기엔, 아니 지금 제가 봐도 완전히 엉뚱한 청이었습니다. 그 앞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이라는 구절만 주의 깊게 살펴봤어도, 그런 청은 드리지 않았을 텐데!

사실 ‘무엇이든지 청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것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을 알고 나니, 어쩌면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게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엉뚱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작년보다는 좀 더 평범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활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임재혁(스테파노) 신부
백골(육군 제3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9,26-31

회 답 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 2 독 시

1요한 3,18-24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요한 15,1-8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진례를 살다

마무리

이 땅에 세워진 대부분의 성당들이 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지어졌다하더라도 전례 현장의 정신과 교회의 규범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성당은 전례를 거행하는 장소이며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도의 집입니다. 전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가 드러나고 특별히 성찬례를 통하여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선사하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성당의 중심이 제대냐 감실이나 하는 문제로 신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가지거나 사목자들 사이에서도 성당을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이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오랜 신학적 숙고와 연구를 바탕으로 규정한 규범과 지침들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옛 관행이나 기존 관념이나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제대와 감실의 관계

주요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하는 현실은 무척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이 반포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이 땅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감실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앙의 원천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구현하는 성찬례에 두기 보다는 신심을, 그중에서도 성체공경 신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전례헌장」은 48항에서 이를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 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 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복 음 록 상



지킴이

심연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다.

세상의 세파에
제 멋 대로
흘러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 무엇이 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라파엘로의 스승으로 더 알려진 페루지노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한 그림들의 도상을 충실히 따른 그림을 그렸다.

하단에는 장식이 없이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석관이 보이고, 석관의 뚜껑이 반쯤 열려 있으며, 군인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왼편의 군인 한 명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혼비백산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상단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타원형 빛 안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구름을 딛고 서 계신 모습으로 그려져 계시며, 예수님의 몸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와 양손과 발에 못에 찔린 상처 외에는 깨끗한 모습이다. 양쪽에 거의 같은 모습의 천사가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보위하고 있으며, 라파엘로의 스승답게,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와 차분하고 조화로운 색감으로 그림을 완성해내었다.

페루지노(1446-1524)
1499-1500년 작, 패널 위 유화 233 X 165 cm
비티칸 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동해(해군) 성영신 신부

◆ 교구장 동정

- 비룡(육군 25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29일(주일)

◆ 통일기원 상모의 밤

때: 5월 5일(토)
곳: 22사단 통일전망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